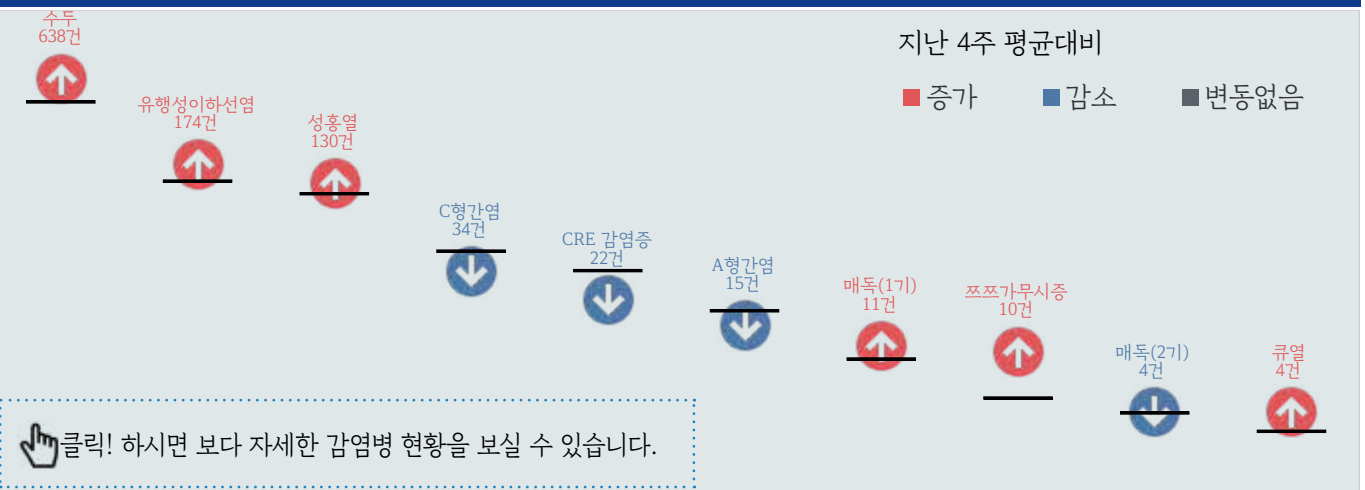


발행일 2018.5. 10.(통권 제142호) **발행처**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이희영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4206호
전 화 031-738-0300 **팩 스** 031-624-5021 **홈페이지** <http://www.gidcc.or.kr>

- 이번 주는 **수두 638건, 유행성이하선염 174건, 성홍열 130건, C형간염 34건**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봄철 유행** 시기를 맞아 **수두**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0~12세**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자 발생 시 전염기간 동안 등원 및 등교를 **중지***하며, 접촉자 중 수두 예방접종력이 없고,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최소 5일) 격리
 - ** 3일 이내 수두 예방접종 시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 시 증상 완화의 효과가 있음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은 낮게 유지 중이며, 지난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 15주차 8.3명 - 16주차 6.7명 - 17주차 8.0명 - 18주차 8.8명
 - (국외) **콩고민주공화국 비로코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 환자 2명이 보고되었습니다. 2017.7.2 WHO에 의해 종결 선언된 뒤 다시 발생한 이번 유행은 1979년 에볼라 유행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9번째 유행 보고입니다.
- 이번주에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희영단장님의 컬럼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꼼꼼한 복기가 필요하다**를 소개합니다.

2018년 제18주차 경기도 감염병환자 신고현황



기타 감염병 신고		해외유입		
3건	덴기열 급성B형간염 말라리아 폐렴구균	덴기열 3건	치쿤구니아열 2건	파라티푸스 1건
2건	라임병 렙토스피라증 백일해 신증후군출혈열 치쿤구니아열 장티푸스	↑	→	→
1건	파라티푸스 CJD/vCJD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 2018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 제18주차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감염병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 2018 주차 18 등록보건소 모두

질병군 감염병명	2018				동기간대비 (1.1-18주)			이전해 연간 보고건수					해외유입 (18주)	
	18주	17주	16주	15주	2018	2017	증감율(%)	2017	2016	2015	2014	2013		
1 콜레라								2						
장티푸스	2	4	3	1	29	11	163.6	34	26	22	43	33		
파라티푸스	1				4	5	-20.0	15	3	8	8	10	1	
세균성이질		1			14	11	27.3	26	27	11	15	6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4	5	-20.0	42	21	5	10	3		
A형간염	15	15	20	17	341	541	-37.0	1,343	1,261	647	491	271		
총계	18	20	23	19	392	573	-31.6	1,462	1,338	693	567	378	1	
2 백일해	2	2			24	19	26.3	89	17	21	14	9		
파상풍						1	-100.0	1	5	1	2	1		
홍역		2	1		7				2	1	147	23		
유행성이하선염	174	155	138	135	1,632	1,307	24.9	4,536	3,841	4,939	4,813	3,269		
풍진		1	3		10			2	5		3	3		
일본뇌염									3	11	8	1		
수두	638	606	464	424	6,545	6,395	2.3	22,645	14,825	13,671	13,584	10,306		
급성B형간염	3	5	2	2	41	31	32.3	93	91	42	46	2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페렴구균	3	3	4	7	83	36	130.6	109	86	57	13			
총계	820	774	612	568	8,342	7,789	7.1	27,476	18,875	18,743	18,630	13,637		
3 말라리아	3	4	4	2	23	12	91.7	295	381	417	301	203		
성홍열	130	121	121	111	1,904	2,596	-26.7	6,885	3,504	2,033	1,612	1,092		
한센병								1			1			
수막구균성수막염		1			1	1	0.0	3		1	2	3		
레지오넬라증		1	2	1	21	8	162.5	50	22	13	5	3		
비브리오패혈증						1	-100.0	10	12	6	8	9		
발진열								1	2	2	4	5		
쯔쯔가무시증	10	5	4	1	43	11	290.9	724	973	813	812	799		
렙토스피라증	2			1	4	1	300.0	17	24	16	10	6		
브루셀라증		2	1		6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2	2	1	1	14	34	-58.8	109	138	108	92	127		
매독(1기)	11	13	6	8	173	94	84.0	407	270	255	201	162		
매독(2기)	4	3	4	3	65	40	62.5	188	118	70	59	37		
매독(선천성)					1			1	5	6	12	4		
CJD/vCJD	1	2	3	2	14	2	600.0	7	8	8	15	1		
C형간염	34	48	37	54	803			1,274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22	34	41	32	560			831						
총계	219	236	224	216	3,632	2,800	29.7	10,803	5,457	3,748	3,134	2,451		
4 뎅기열	3	2	1	2	19	11	72.7	54	87	64	50	56	3	
큐열	4	5	1	2	29	2	1,350.0	9	9	2		2		
라임병	2		1		5			7	5		5			
유비저									2	2				
치쿤구니야열	2				3			1	1	1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								56	28	7	8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	-100.0	4	2					
보툴리눔독소증														
신중감염병증후군														
웨스트나일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67				
총계	11	7	3	4	56	14	300.0	131	134	143	63	58	5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꼼꼼한 복기가 필요하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이 희 영

복기(復棋)[-끼--]

(동사)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 보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빠르게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그해 2015년부터 느리게는 작년 여름까지 ‘메르스 백서’의 성격을 가진 출판물이 40여권 발간되었다(표 참고). 백서라는 이름을 모두 달고 있지는 않지만, 메르스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일부는 평가와 제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록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과연 3년 전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복기한 것일까?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복기하여 평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구분	발행처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광역지자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구로구, 강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순창군,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의료기관	경기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서북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명지병원, 단국대병원
협회 / 학회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NGO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메르스라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을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신종감염병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 것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을 하면서, 면회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련 홍보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감염병 발생 소식이 빠르게 일선 병원에 전달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고, 2명이었던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좋은 변화이다. 매년 진행되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은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보호복 착용의 실습도 정기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발열환자 선별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로 가득한 응급실은 여전히 혼잡하다. 감염 예방의 기본 수칙인 손씻기에 대한 조사*에서 손 씻는 시간이 21초 이상인 경우는 겨우 2.5%였고, 1~5초만에 손씻기를 마치는 조사 대상자가 46.4%로 절반 정도였다. 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는 사람은 73.7%였지만,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26.2%에 불과했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1,200만 경기도민에게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조사할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네 명 뿐이다.


* 2015년 9월 전국 17개 시·도 지하철역·공항 화장실 이용자 1,190명 관찰 조사

메르스 이후에도 다양한 감염병 관련 사건사고가 있었다. 2017년 한해만 돌아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연초 포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고양이 감염이 있었고, 2월에는 여주의 공원 급수시설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6월에는 광명시 일대 3개 학교에서 비슷한 시기에 집단설사가 발생하였고, 7월에는 의정부 아파트 단지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었다. 8월에는 화성시 대형마트 식품조리 종사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다시 한번 당시 상황에 대한 꼼꼼한 복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다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2015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메르스가 아닌 새로운 감염병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발생하면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갑자기 시작되는 감염병에 의한 위기를 겪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훨씬 더 긴 시간을 복기와 대응준비에 써야 하는 이유이다.

THE WEEKLY NEWS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7\(월\)](#)

[\[보건복지부\]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이상증상자 발생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 5.9\(수\)](#)

[\[질병관리본부\]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5.10\(목\)](#)

[\[질병관리본부\]생후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률 78.0% 5.10\(목\)](#)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하세요.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_콩고 민주공화국 \(DR Congo\)](#)

- 2018. 5. 18 콩고민주공화국 에콰테르(Equateur)주 비코로(Bikoro)에서 2명의 에볼라 확진환자 발생 보고
-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의심환자 5명 검사 결과, 2명의 검체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검출
- 2017년 발생한 에볼라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부는 WHO와 긴밀한 협력 유지
- 콩고민주공화국은 1976년 이후 과거 총 9번의 에볼라 유행
- 최근 2017년 5월 바우엘레(Bas-Uel)지역에서 환자 8명(사망 4명)이 발생(2017.7.2 WHO에 의해 종결 선언)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행사

[용인시치 인구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5.10(목) 15:00~17:00/ 용인시문화예술원 마루홀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200명 [담당 : 박은정(031-738-0302)]

[감염병 위기 대응 및 보호복 착용의 교육](#)

일시 / 장소 : 2018.5. 10(목) 16:00~18:00/ 안산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대상 : 상록수보건소 직원 30명 [담당 : 김나영(031-738-0305)]

[시흥시보건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일시 / 장소 : 2018. 5. 29.(화) 16:30~17:30/ 시흥시보건소(예정)
대상 : 질병모니터요원 70~100명 [담당 : 김나영(031-738-0305)]

[제3차 경기도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일시 / 장소 : 2018. 5.31.(금) 16:00~17:00/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긴급상황실
대상 : 경기도청,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 등 [담당 : 박은정(031-738-0302)]

우리 아이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하나요?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Q 수두란 무엇인가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열과 발진 등이 나타나는 감염병입니다.

수두는 4~6세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연중 4~6월과 11월~이듬해 1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Q 유행성이하선염이란 무엇인가요?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열과 함께 턱이 부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4~6세의 어린이와 13~18세의 중·고등학생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학기중인 4~6월과 10~12월에 주로 발생하며, 중·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취학 전 2회 예방접종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며, 감염된 중·고등학생은 특히 전염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아 전파를 예방해야 합니다.



Q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모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같은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두는 물질(수포)에 직접 접촉해서도 전파됩니다.

Q 아이의 같은 반 친구가 수두(또는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대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의 개인위생 실천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생후 12~15개월: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1차, 만 4~6세: 유행성이하선염 2차)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하도록 합니다.

Q 우리 아이가 수두(또는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의심증상을 보이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의심되었다면, 집단발생을 막기 위해 아이를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수두에 걸렸다면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피)가 생길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다면 턱이 붓는 이하선염의 증상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학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야 합니다.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은 어른보다 형제자매에게 더 잘 감염될 수 있으니, 집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특히 식사)을 최소한으로 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이전에 같은 감염병을 앓았던 보호자가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엄마가 임신부라면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